

양돈인들의 따뜻한 정을 이웃에 전하는 경기 화성지부

취재 : 정재은

경기 화성지부(이정배 지부장, 51세)는 양돈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화성 시 축수산과 등과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많은 협조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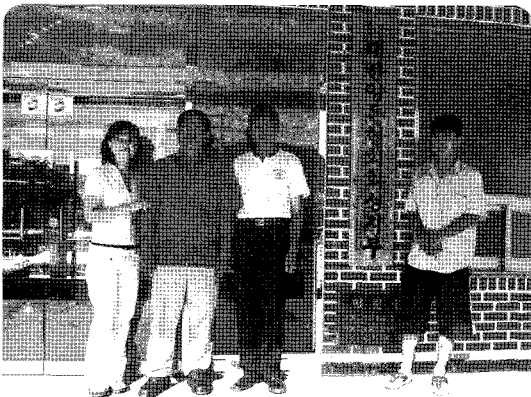
화성지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라는 이념 아래 불우이웃돕기 척사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납부한 성금으로 화성시 불우이웃을 꾸준히 돕고 있으며, 양돈인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보내기 등을 활성화하여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계몽하고 있다. 아울러 화성지부는 사료, 기자재, 정액, 종돈 등의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양돈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밖에 화성시의 고품질 브랜드인 허브포크를 생산함으로써 지역 양돈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과 연계한 백신공급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화성시 양돈산업을 이끌어가는 화성지부

화성 및 수원지역 양돈인들의 단합과 권익 향상을 위해 1973년 임의단체가 구성되었으며, 1979년 2월 정식으로 수원지부가 설립되었다. 이후 1995년 1월에 화성·수원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난 1999년 2월 11일 화성지부

로 최종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화성지역에서 500두 이상 사육농가는 120여 농가로 15만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72명이 지부회원으로 8만5천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임원은 현재 제10대 이정배 지부장(2002년 1월 지부장 취임)을 중심으로 이명복 고문, 권인식·이상열 부지부장, 차상석·김장겸 감사, 김민수 총무, 읍·면별로 12명의 이사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진순



▲ 화성지부 사무실 앞. 좌측부터 화성지부 이진순 사무장, 이정배 지부장, 김민수 총무, 윤희완 회원



▲ 경기 화성지부 이정배 지부장

사무장이 화성지부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진을 보좌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화성지부는 다양한 공동구매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화성시 양돈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한편 화성지부는 월 2만원씩의 회비와 공동구매를 통한 장려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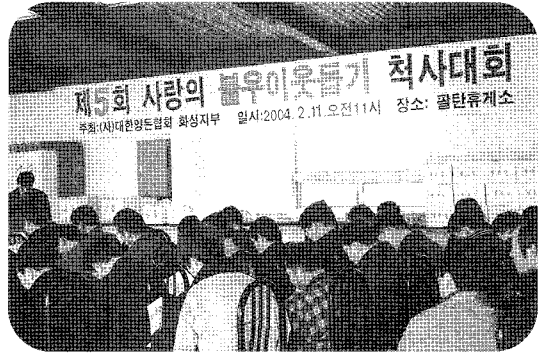
불우이웃돕기 척사대회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화성지부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척사대회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주로 2월에 척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직접 모은 성금과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찬조금으로 1년을 기준단위로 주기적, 계속적으로 화성시 관내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 것이다. 마련된 기금은 소년소녀가장 9명에게 생활보조금으로 매달 10만원씩, 양로원에 분기별로(1년에 4번) 130만원씩, 지체장애인들에게 분기별로 60만원씩, 비인가 사회단체 등에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범적인 활동으로 양돈인 단체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부 자체적으로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들은 설날을 맞이해 성금을 모아 비인가 단체를 위문 방문하고, 돼지고기 1,000kg을 전달하고 있다.

공동구매 사업으로 혜택 제공

화성지부는 사료, 기자재, 정액, 종돈 등 다양한 공동구매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혜택을



▲ 지난 2004년 2월 11일에 개최된 제5회 사랑의 불우이웃돕기 척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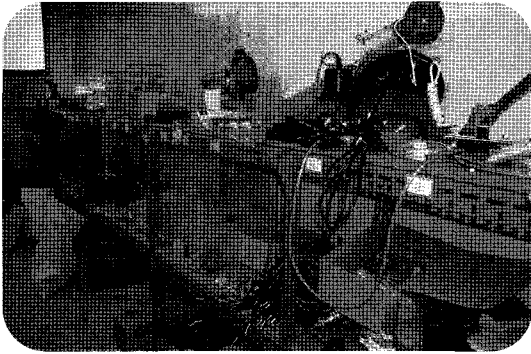


▲ 회원들은 매년 설날을 맞이해 비인가 단체를 위문 방문하고, 돼지고기 1,000kg을 전달하고 있다.



▲ 화성지부는 불우이웃돕기를 통해 마련된 성금을 비인가 사회단체 등에 전달하고 있다. (좌측 화성지부 이장배 지부장)

제공하고 있다. 사료 공동구매 사업은 5개사와 계약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장려금을 회원 본인에게 환원함으로써 양돈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일부는 지부 기금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은 각종 기자



▲ 화성지부는 기자재 외 다양한 공동구매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 화성지부 김민수 총무(우측)과 이진순 사무장

재를 지부에서 대량구매 하여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비

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어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또한 지부에서는 품질도 보장되어 있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인공수정센터를 선정, 정액을 공동구매해 회원들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종돈에 관해서도 공동구매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비용 측면에서는 이익을, 이용 측면에서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허브포크 브랜드 사업으로 양돈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지난 1998년 10월부터 한약재를 이용한 허브포크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5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육가공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판매망이 확보되어 있으며, 71.5% 정도의 높은 지급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11월 화성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허브포크 무료시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허브포크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관과 유대적 관계 유지로 지역 양돈산업 발전에 공조

화성지부는 화성시 축수산과(남기연 과장) 등 행정기관과 관련단체 및 관련업계와 유대적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다.

화성시로부터 허브포크 브랜드 사업을 지원(2004년의 경우 2억원)받고 있으며, 분뇨처리를 위한 탱크(200톤 20기)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화성지부는 올해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을 받아 양돈농가에 이온정수기를 보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부를 통해 관급백신이 공급되고 있다.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 증부출장소(이정배 소장)가 지부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지부는 방역단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방역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지난 2003년 비회



▲ 화성지부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허브포크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나가고 있다.

원 한 농가에서 돈열이 발생하였지만, 빠른 정보 입수와 철저한 위기의식으로 차단활동을 한 결과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이정배 지부장은 2003년 11월 8일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중소가축 부문 대상, 브랜드육 장려상을 수여했으며, 예전에 돈열예방과 관련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농림부장관상을 수여했다. 또한 이진순 사무장은 지난 2003년 5월 6일에 돈열 관련 방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화성시장 표창을 받았다.

월례회의와 세미나 전개로 정보 제공

화성시부는 매월 월초에 이사회, 16일을 전후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필요시 세미나를 전개하여 양돈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또한 매년 10월에는 회원들의 화합과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1박 2일로 단합대회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 20일에는 경남에 위치한 해인사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서로 이해하고 단합함으로써 협회 힘을 길러나가야

이정배 지부장은 “회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단합하며, 지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불우이웃 돕기로 함께 사는 사회를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어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림부나 각 도의 정부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으로, 그리고



▲ 지난 2003년 10월 20일 경남 해인사에서 개최된 단합대회



▲ 매월 16일을 전후로 개최되고 있는 화성시부 월례회의

생산자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업 선정 및 정책 수립시 협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무임승차자를 없애고, 협회 위상 제고 및 자연스러운 회원 가입 유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배 지부장(양돈자조금 대의원)은 “양돈자조금이 양돈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총무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브랜드사업의 경우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며, “사료, 종돈, 정액 통일과 유통방법 제시를 위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농가들이 브랜드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돈**